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8, 인간의 구성, 삼분법과 문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인간성과 죄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인간의 구성, 삼분법 및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수를 살펴보고, 인간의 구성적 본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신학적 인류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다른 견해입니다. 일원론, 우리는 하나이며, 그것은 나눌 수 없으므로 중간 상태는 부정됩니다. 그것은 현대 철학과 과학의 견해이며, 성경이 중간 상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법 또는 인류학적 이원론은 우리가 두 부분, 즉 몸과 비물질적 부분인 영혼 또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대명사로 말합니다.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삼분법은 영과 영혼이 성경에서 때때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사실이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 본성의 다른 부분이자 존재론적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애정, 욕망, 감정, 의지의 자리로 정의되며, 신의 의식과 신과의 소통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과 구별됩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네 번째 관점은 조건부 통일, 심신적 통일 또는 전체론적 이원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중간 상태는 분리 가능한 인간의 영이나 영혼 또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와 영혼의 이러한 분리는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전체론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육체의 부활 이후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 관점, 일원론, 이분법, 삼분법, 그리고 이 조건적 통일성, 심신적 통일성, 그리고 전체론적 이원론은 이분법의 현대적이고 개선된 버전으로, 성경적 이야기에 맞춰져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중간 상태를 입증하는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43에서 예수님은 회개한 도둑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23 ,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고,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몸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현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다시 한 번 합치시는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6, 8, 몸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JP Moreland는 Talbot Seminary의 철학자입니다. 저는 ETS 토크에 한 번 갔었는데, 세상에, 그는 저를 축복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양보하는 의심스러운 일들이 요즘 다 있는데, 이게 그 중 하나예요.

그들은 일원론에 기울어져 있고,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틀렸다. 일원론적이 되는 것이 더 깔끔하지만, 성경은 항상 깔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저분하다.

그리고 Moreland, 그가 제시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예를 잊었는데, 그 모든 예가 제가 수년간 힘들고 느린 주석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두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 인 증거 본문은 고린도후서 5:6, 8입니다. 육신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중간 상태가 신자들에 의해 언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두 군데에서 언급되는데, 결국 중간 지옥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9도 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릭슨이 옳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간 상태는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입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몸에서 떠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히 외삽하여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계 신학의 실수입니다. 삼분법적 증명 본문. 삼분법이 근거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삼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영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아하, 그것은 삼분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

양심, 의지, 마음, 정신, 영혼, 영. 그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측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삶을 보는 방식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실제로 영혼과 영을 구별합니다. 영은 인간을, 아마도 신과 수직적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때때로 영혼은 인간을 몸으로, 특히 창조물과 동료 인간과 관련하여 더 수평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의 부분, 구성 요소, 개체 또는 존재론적 요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 문맥을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5:16.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성령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하십시오.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악의 모양을 멀리하십시오.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흠 없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22절에서 실제적인 권고 목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기원문을 사용합니다 .

그것은 소원을 표현하는 그리스어의 분위기 또는 양식이며, 소원 기도라고 불리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소원 기도는 서신 장르의 하위 장르입니다. 즉, 소원 기도는 소원이나 좋은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동시에 신을 향한 것입니다. FF Bruce Ward Biblical Commentary 에서 이 자리에서 소원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한 소원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희망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 첫 번째는 능동적 표현이고 두 번째는 수동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순과 autos의 집중적인 사용을 통해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하고 데살로니가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등등. 5:23과 24의 소원기도는 3:11에서 13까지의 앞의 기도와 유익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전서 3:11,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넘치게 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흠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소원 기도문은 모두 첫째로 autos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시작하는데, autos는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신으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더욱 강화됩니다.

둘째, 그들은 신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 앞의 구절은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포함하며, 이는 그가 신과 동등함을 의미한다.

셋째, 소원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 아오리스트 희망적 표현을 사용한다.

네 번째, 거룩함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종말론적 노트로 마무리하세요. 이 두 가지 소원 기도는 큰 유사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거룩함에 관해 이전에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3:13, 4:3~6. 이제 5:23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집중시켜 주시고,

데살로니가인들을 온전히, 온전히, 또는 철저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흠 없이 지켜지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함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해서 그는 또 다른 독립된 절에서 그것을 반복한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지켜지기를 기도한다.

그는 독자들이 온전히, WHOLLY, 거룩하게 되었다는 개념, 또는 ESV,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개념을 확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온 영, 혼, 몸이 주 예수님의 재림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온 영, 혼, 몸은 5:23에서 온전한 당신의 확장입니다. 둘 다 5:23의 그 구절의 첫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온전한 존재로 지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그들의 인격의 일치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단수 동사 *may it be kept*와 단수 형용사 *holakleron*을 통해 전달됩니다 .

즉, 당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지켜지는 것은 단수입니다. 흠 없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의 세 측면은 하나의 통일체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동사와 형용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동사는 세 가지 요소와 그것을 설명하는 형용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합쳐져서 3:13에서 여러분의 심장의 의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장은 인간 체질의 또 다른 부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며, 원래부터 그렇게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심장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펌프질하는 펌프. 그것은 당신의 내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신체적 측면과 영적 측면 사이의 구분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영과 영혼, 존재론적 측면 사이의 비교 가능한 구분을 만드는 것은 강제적입니다.

브루스가 3:11에서 3:13까지의 소원기도에서 몸, 영혼, 영을 담은 소원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한 것을 주목하세요. 5:23에서. 이것은 인용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FF 브루스의 코멘트입니다.

건설하기에는 위태롭습니다. 죄송합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강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온전한 존재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그는 단수 동사와 단수 형용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의 통일성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의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존재에 중점을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 전체는 다양한 측면, 특히 부분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측면을 나열함으로써 언급됩니다. 인간은 몸, 영혼, 영입니다 . 몸은 인간의 물질적 부분을 말합니다.

영과 혼은 그의 비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23에서 영과 혼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명기 6:5에서 인간의 전체 존재에 대한 유사한 표현보다 인간 본성의 두 가지 뚜렷한 구성 요소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는 마태복음 22:37. 온 마음과 혼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네 부분은 몸과 구별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단지 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의 수사적 축적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0:27도 마찬가지입니다. FF 브루스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23절에 대해 논평합니다. 인용문, 세 명사 pneuma, psuche , soma, 즉 영, 혼, 몸을

병치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삼부, 3부 교리를 구성하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저자들이 기도하는 성화의 완전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함께 3:13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각에 거의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의 육체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구별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영과 혼을 비교할 만한 구별을 하는 것은 강요됩니다. FF 브루스.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주석.

브루스가 3:11-13의 소원 기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5:23의 몸, 혼, 영과 비교한 것을 주목하세요. 제 질문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삼분법적 관점에서 마음은 어디에 들어맞을까요? 답: 아니요,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영과 혼이 일부인 것 이상으로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삼분법적 해석이 수사학을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이 경우 바울인 저자가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것을 실제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삼분법 증명 본문은 히브리서 4:12입니다. 삼분법의 다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읽은 정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의를 읽어낼 수 있는 몇 구절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는 여호수아가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이 얻지 못한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11,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제, 그것은 주님과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계시록 14장에서도와 같이,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고 수고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히브리서 4:11, 그러면 아무도 광야에서 조상들이 보인 것과 같은 불순종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고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이전 구절들과 접속사 *gar* 또는 *for*로 연관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그 안의 불순종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섯 가지 술어 형용사, 그 중 두 개는 분사를 사용하여 이 역동적인 마음을 살피는 기능의 관점에서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고 강력하다고 말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이사야 55:11, 내 말씀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등을 비교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묘사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안팎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여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불순종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문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요점입니다.

그것은 혼과 영을 나누는 데까지 꿰뚫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는 데까지 침투합니다. 우리는 이 두 쌍의 명사를 인간의 비물질적 부분인 혼과 영, 그리고 물질적 부분인 관절과 골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그렇다고 말하고 관절과 골수가 실제로 우리 신체 구성에서 독특한 실체라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 존재에는 피부, 뼈, 피, 근육, 힘줄 등 다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물질적 구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심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자. 심장과 심장은 영혼과 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인간은 몸, 영혼, 영, 심장이라는 세 가지 비물질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영혼과 영의 구분은, 인용문, 용어의 수사적 축적, 닫기 인용문, 인간의 전체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브루스, 히브리서 주석, 신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 주석.

요점은, 인용문, 영혼과 영 사이 또는 관절과 골수 사이보다 더 친밀한 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립 휴즈, 히브리서 주석. 하나님의 꿰뚫는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고 잠재의식적 동기를 밝혀냅니다. 브루스, 생각과 숙고는 인간의 정신적 삶에 대한 세세한 차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동의어이며 신의 말씀의 탐구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다음 구절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눈에 열려 있고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맥락상, 작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삼분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를 기억하세요. 삼분법을 옹호하는 체계적 신학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견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저 그 구절들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12, 데살로니가전서 5:23, 그리고 그들의 결론을 그냥 가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스코필드 참조 성경, New Schofield 가 있는데, 확실히 도구로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영혼은 애정, 욕망, 감정, 의지의 자리입니다. 영혼은 애정, 욕망, 감정, 의지의 근원입니다. 영은 신의식과 신과의 소통의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절은 삼분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루가복음 1:46-47에서 마리아는 찬송가에서 기도합니다. 인용문: 내 영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세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인용문 닫기.

여기서 영혼과 영은 신의 의식과 신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동의어로 사용되는 듯합니다. 저는 영만이 그런 일을 하고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구절에 대해 할 수조차 없으므로, 누군가가 여전히 “아하, 당신은 그 중 90%를 제거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27에서 예수님은 영혼(ESV) 또는 마음(NIV)으로 괴로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21에서 구주는 영으로 괴로워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용법은 저에게는 요한 복음서의 변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 복음서의 특징인 4복음서 5장 변형에 대한 레온 모리스의 연구를 비교해 보세요. 이 구절에서는 영과 혼이 모두 애정, 욕망, 감정의 씨앗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것이 영혼의 섭리이고 영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이런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영혼을 지칭하는 슬픔, 사무엘상 1:10, 한나와 비교해보세요.

베드로후서 2:8, 롯. 그리고 슬픔을 비교해보세요. 영을 말합니다. 이사야 54:6, 사도행전 17:16, 바울. 고린도전서 5:5에서처럼 영은 죽음을 견뎌내지만 영혼은 견뎌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9과 야고보서 1:21은 믿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말한다. 요한계시록 6:9와 비교해 보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복수를 요구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23,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이 온전하게 되었다.

영은 히브리서 12:23에서 죽음에서 살아남는 인간의 비물질적 부분인 중간적 존재를 말합니다. 영혼은 요한계시록 6:9에서 죽음에서 살아남는 인간의 동일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두 가지 다른 부분입니까? 인간은 포괄적으로 몸과 영혼 또는 몸과 영으로 지정됩니다. 전자의 지정은 마태복음 10:28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서 파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어떤 부분을 생략하셨는가? 영? 아니요. 그는 모든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1에서 영과 육은 인간의 본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듯합니다. "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정화 합시다 .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합시다. "

영혼이라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다른 측면, 구성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과 육과 같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마음과 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24에서 인용하면, 미혼 여성이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몸과 영혼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일부가 빠졌나요? 오, 잠깐만요. 영이 헌신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야고보서 2:25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영혼의 떠남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35:18, 열왕기상 17:21, 마태복음 10:28. 또한, 당신이 추측했듯이, 영의 떠남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31:5, 마태복음 27:50, 누가복음 9:55. 50가지 재미, 오, 재밌네요. 누가복음 9:55, 사도행전 7:59. 한 번 더, 죽음은 영혼의 떠남으로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누가복음 35:18, 시시, 미안해요.

창세기 35:18, 열왕기 상 17:21, 마태복음 10:28. 그리고 다른 때 성경은 죽음을 영의 떠남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31:5, 마태복음 27:50, 누가복음 9:55. 그리고 사도행전 7:59. 죽은 자는 때때로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6:9 그리고 때때로 영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2:23. 인간의 헌법적 본질에 대한 결론.

이분법으로 나는 마지못해 인간의 물질적 부분과 비물질적 부분의 존재를 인정한다. 지저분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 없고 성경을 그것에 맞추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연합은 정상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물질적 부분이 살아가고 비물질적 존재를 사는 중간 상태의 존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적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파괴될 마지막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 중간 상태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최종 상태는 새 하늘 아래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통합된 인격으로서의 영원한 삶일 것입니다. 존 쿠퍼는 *Body, Soul and Life Everlasting* 에서 인간을 전체론적 이원론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영웅 중 한 명인 후크마가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심신적 통일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간 상태를 긍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신학적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책을 제 교육 경력 내내 견고하고, 성경적이며, 개혁적이고, 복음적이며, 공정하고, 좋은 기독교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간청하며, 종처럼 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추가.

이 강의를 영혼의 기원에 대한 간략한 여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끝까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기독교적 입장은 전통주의와 창조론입니다. 전통주의, 변형주의.

전통주의와 창조주의. 찰스 호지는 전통주의자를 영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생성의 법칙에 의해 생성되며, 신체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단언합니다.

Hodge's Systematic Theology, 2권, 68쪽. 저는 제 나이를 밝히겠습니다. 중세 후기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Charles Hodge의 3권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남자였고, 우리는 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호지는 창조론을 아이의 영혼이 부모에게서 생성되거나 유래되지 않고, 신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창조된다는 견해로 정의합니다.

Hodge, Volume 2, page 70. Hodge가 이러한 입장에 대한 논의에서 내린 결론은 인용할 만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겁먹고 Charles Hodge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체계신학, 2권, 75~76쪽. 성경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임신 당시에 신이 우리에게 주입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논의의 목적은 성경에 명확히 계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 저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평범하고 중요한 교리에 반대되는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전통주의가 영혼이 분리나 분열을 허용한다고 가르치거나, 인류가 숫자적으로 동일한 본질로 구성되었다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것과 동일한 숫자적 본질을 자신과 개인적으로 결합시켰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험한 것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확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거부함으로써 사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오류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 역사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척하지 않고, 아멘, 단순히 이것이 전통주의 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척하지 않고, 전통주의가 단순히 인류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낳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일반 법칙에 따라 번식되고, 아이가 부모로부터 본성을 물려받으며, 신의 지시적이든 창조적이든, 다른 모든 생물의 번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법칙의 작용을 통해, 즉 신의 작용에 의해 통제되고 통제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열린 문제나 무관심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창조론은 인간의 영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우 생명의 생산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힘이 행사된다고 반드시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분열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인류가 숫자적으로 동일한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과 숫자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뿐입니다.

창조론의 문제점은, 신이 죄 많은 영혼을 창조하는가, 아니면 신이 순수한 영혼을 창조한 다음 그것이 인간 태아에 들어가면 죄가 되는가?

영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지에 동의합니다. 성경은 전통주의, 우리는 부모로부터 영혼을 얻는다는 것, 또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은 특별히 자궁에 있는 각 아기를 위해, 아마도 임신 시에 영혼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류를 거부해야 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장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강의에서 우리 과정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인 죄에 대한 교리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인간성과 죄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인간의 구성, 삼분법 및 문제입니다.